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 대학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곽수란¹⁾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2(KEEP II) 1차~3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 학업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학업활동(학교만족도, 학업성취)이 초기 성인기 학교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 인과관계로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유형(2~4년제 전문대, 4~6년제 대학)에 따라 고등학교 학업활동과 대학 생활에 차이가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대와 대학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을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초기성인기 행복감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고등학교와 대학 학교만족도 그리고 대학 시점의 행복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활동(학교만족도, 학업성취)이 대학 학교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 진학 집단과 대학 진학 집단에서 차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성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건강한 청소년기 발달과 초기 성인기로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청소년기 발달과업, 자아정체감, 학교만족도, 학업성취, 행복감

I.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성인기에 진입한 대학생 청년들은 행복한가? 본 연구는 이런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고등교육 취학률이 71.5%(한국교육개발원, 2021)에 달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 재학 중인 청년들의 학교 및 일상생활 만족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사회를 부양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인초기인 대학생활 성과는 현재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기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연계되어 있다. 즉, 대학생의 학교, 학과 그리고 전공은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기의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 수준에 근거하여 선택된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학업성취는 성인기 대학, 학과 그리고 전공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인기 대학생의 학교만족도 및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1) 고구려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있는 고등학생은 건강한 성인기 생활을 위해 학업활동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가정에 생활의 토대를 두고 있으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러나 단순히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육목적 달성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학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미성년인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곽수란, 2018).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현재 자신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 자아정체감은 의미있는 타인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미성년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중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은 학업활동에 대한 동기 그리고 진로결정과 직접적이고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발달과업은 초기 성인기 대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은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학업활동이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학업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초기 성인기에 이른 대학생의 삶의 질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중등교육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초기 성인기 대학만족도 및 행복감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은 전환기이다. 절대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하여 성장과 성숙이 진행되는 아동기와 다르게 청소년기는 일차적으로 급격한 신체 및 생물학적 변화인 사춘기(puberty)를 경험한다. 또한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주변인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전반에서 질풍노도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청소년은 필연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의문에 답을 찾은 상태가 자아정체감 형성인 것이다. 즉,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객관적 자신(능력, 적성,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확인한 상태인 것이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 가장 핵심적인 발달과업을 자아정체감 형성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아정체감(ego-identity)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혹은 정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Erikson이 인간 생애 발달 중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성인들로부터 보호와 배려를 받았던 미성년기와 다르게 청소년기 이후에는 자신이 성인기 사회구성원으로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야하기 때문이다. 보호와 배려를 제공하는 성인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신을 정확하

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자아정체감이 성취되지 않으면 여전히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부양자로서 사회구성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라는 말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중요한 기능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책임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성인기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자아정체감 혼란이나 유실로 인해 진로 선택이 부적절할 경우, 불안정한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며(Marcia, 1980; Schiedel & Marcia, 1985),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고등학교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은 가장 먼저 학업성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즉, 청소년의 주된 생활 영역은 학교이고, 중등학교 학업수행이 그 이후의 생활을 상당부분 결정하는 한국사회에서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은 학업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 학업활동은 여타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상관을 가지며, 따라서 학업활동 수준이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명수정·강승호, 2011; 송영명, 2011; 박영신 외, 2012; 서인석, 황홍익, 2009; 이성주 외, 2016; 이진석 외, 2010; 황여정, 김경근, 2006).

한국사회에서 전환기적 발달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의 주요 과업은 학업이다. 대학진학률이 약 70% 달하는 한국사회에서 초기 성인기는 대부분 대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는 학업활동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곽수란(2013)은 수능성적이 대학만족도(학교만족, 학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수능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재학하는 대학의 수업방식에 대한 평가나 대학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이 내신성과 연계되어 있는 수능성적에 상당부분 의존해 있고 따라서 수능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선택과 전공 선택의 폭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넓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첨언하면, 수능성적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는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능성적에 맞는 적당한 대학선택이라는 자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이 된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불충분한 학업적 정보나 지원 그리고 전공에 대한 불만이 인식되지 않거나 불식되는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곽수란, 2012,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업활동의 종합 평가인 수능성적과 대학 수업활동, 대학 만족도와 연계성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이 고등학교 학업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 대학 학업활동 또는 삶의 만족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인과관계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이현경, 김정민, 2017).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2(KEEPⅡ) 1차~3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 학업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 인과관계로 탐색하는 것이다. KEEPⅡ는 고등학교 유형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조사방향으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770명으로 구축한 패널 데이터이다. 분석 표본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2-4년제 전문대(이하 전문대)와 4-6년제 대학(이하 대학) 재학까지 탈락하지 않은 패널을 1차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투입된 표본 수는 2,454명(2-4년 전문대 813, 4-6년제 대학 1,641)이다. <표 1>은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기술통계량(N=2,454)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편모도	첨도
고_자아정체감	고2_자아	1.00	5.00	3.64	.67	-.13	.23
	고3_자아	1.00	5.00	3.68	.66	-.21	.69
고_학교만족도	고2_학교만족	1.79	5.00	3.72	.59	-.06	-.09
	고3_학교만족	1.07	5.00	3.83	.60	-.32	.37
고_학업성취	언어·사회	1.00	9.00	6.21	1.55	-.36	.00
	수학·과학	1.00	9.00	5.96	1.70	-.29	-.40
	예체능	1.00	9.00	6.93	1.74	-1.02	1.20
대_학교만족도	학교생활	1.00	5.00	3.59	.58	-.20	1.08
	학교만족	1.00	5.00	3.71	.83	-.78	1.07
	학과만족	1.00	5.00	3.58	.88	-.62	.44
고_행복감	행복도	1.00	11.00	8.00	1.66	-.72	1.05
	삶의만족	1.00	11.00	7.28	1.74	-.35	.15

2. 변수 내용 및 특성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학업활동이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학교생활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청소년기 대표적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은 청소년 자신이 인식하는 긍정적 자아개념 및 효능감 5문항으로 측정된 변수이다. 고2와 고3 시점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된 자아정체감을 측정변수로 투입하였다. 고등학교 시기는中等교육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동시에 전문 교육을 위해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선택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이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고, 따라서 의미 있는 타인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시설과 교사

와의 상호작용은 고2, 고3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학교만족도는 학교시설, 학교생활 전반 그리고 교사와 상호작용으로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고2와 고3 시점에서 동일하게 측정된 학교만족을 측정변수로 포함하였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는 8개교과 9등급 내신 성적으로 측정되었다. 고등학생의 학업성적을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제한적으로 분석에 투입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본래 목적과 배치되는 특성이 있어 8개 교과 성적을 모두 분석에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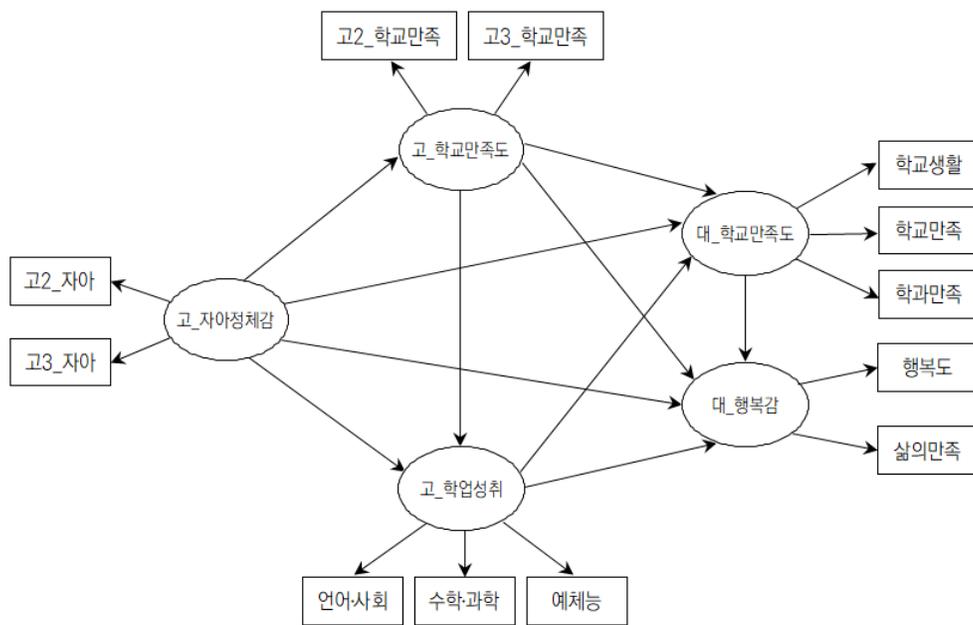
〈표 2〉 측정변수의 구성 및 설명

요인 및 측정변수		내용	데이터	
고_자아 정체감	고2_자아	- 자신에 대한 인식 5문항 평균, -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삶에서 중요한 일, 일에 대한 결정, 계획수행	KEEP II 1차~2차 데이터	
	고3_자아	- ① 전혀그렇지않다 ~ ⑤ 매우그렇다, 5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자아정체감 높음 - 신뢰도: 고2=.830 고3=.853		
고_학교 만족도	고2_학교만족	- 고등학교 생활 및 학교 시설 만족도 7문항, 교사만족 4문항 평균 - ① 전혀그렇지않다 ~ ⑤ 매우그렇다, 5점 척도		
	고3_학교만족	- 점수가 클수록 학교만족도 높음 - 신뢰도: 고2=.879 고3=.891		
고_학업 성적	언어·사회	- 국어, 영어, 사회 내신성적 9등급 평균 - 1등급~9등급(역산), 점수가 클수록 학업성적 좋음 - 신뢰도: .829		
	수학·과학	- 수학, 과학 내신성적 9등급 평균 - 1등급~9등급(역산), 점수가 클수록 학업성적 좋음 - 신뢰도: .696		
	예체능	- 음악, 미술, 체육 내신성적 9등급 평균 - 1등급~9등급(역산), 점수가 클수록 학업성적 좋음 - 신뢰도: .893		
대_학교 만족도	학교생활	- 대학생활만족도 10문항 평균 - ① 전혀그렇지않다 ~ ⑤ 매우그렇다, 5점 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 높음 - 신뢰도: .892		KEEP II 3차 데이터
	학과만족	- 학과만족도, ① 전혀그렇지않다 ~ ⑤ 매우그렇다, 5점 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 높음		
	학교만족	- 대학만족도, ① 전혀그렇지않다 ~ ⑤ 매우그렇다, 5점 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만족도 높음		
대_ 행복감	삶의만족	- 삶의 만족도 ① 삶이 최악에 있음 ~ ⑪ 삶이 가장 최고에 있음 - 점수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 높음		
	행복도	- 행복도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⑪ 매우 행복하다 - 점수가 클수록 행복도 높음		

청소년기 고2와 고3 시점의 자아정체감과 학업활동은 원칙적으로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근거가 된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면 자신이 계획한 미래생활과 연계된 진로설계에 따라 대학생활 및 학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학교만족도는 학교생활, 학과(전공)만족, 학교만족으로 측정하여 모형 분석에 투입하였다. 만약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긍정적이면 대학 생활 및 학업활동도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 성인기 생활 만족도가 높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복감은 삶의 만족과 행복도를 각각 측정변수로 묶어 분석하였다. 측정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2>와 같다.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까지 중요 발달과업 요인 간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초기성인기에 이르는 과정은 실제로 고등학교 성적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교, 전공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4년제 전문대학과 4~6년제 대학을 다니는 초기 성인기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행복감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년제 전문대학과 4~6년제 대학 2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구체적으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 및 공분산 계수 그리고 평균차이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는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상관 및 공변량 계수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개별모수는 ML(Maximum likelihood)로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검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 방법인 ML은 다변량 정상성이라는 엄격한 기본가정이 요구된다. 다중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모수값을 추정하고 이 모수값에 최대한으로 접근하는 값을 설정된 모형의 추정치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표 3〉 다변량 정상성 검증 결과

모형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값	Z값	p값	값	Z값	p값	χ^2	p값
전체 (N=2,454)	3.08	20.74	.00	188.67	20.26	.00	839.68	.00
전문대 (n=813)	5.02	9.40	.00	183..52	9.55	.00	179.56	.00
대학 (n=1,641)	4.03	18.10	.00	189.03	16.81	.00	610.18	.00

〈표 3〉은 LISREL PRELIS를 사용하여 다변량 정상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다중 변수의 편포도 및 첨도 그리고 편포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2 검증 통계량이 크게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값이 관찰될 확률은 모두 p=.00으로 다변량 정상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변량 정상성이 검증되지 않을 때,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 WLS와 같은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상당히 큰 표본크기일 경우 ML과 WLS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이기중, 2012). 또한 개별 측정변수의 정상성(〈표 4〉 참고)이 대부분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모수추정은 ML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4~6년 대학 예체능, 학과만족, 학교만족 측정변수 정상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4〉 개별 측정변수 정상성 검증 결과

전문대(n=813)								
변수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값	Z값	p값	값	Z값	p값	x^2	p값
고2_자아	-.03	-.35	.72	-.11	-.62	.54	.51	.78
고3_자아	-.04	-.44	.66	-.18	-1.10	.27	1.40	.50
고2_학교만족	-.01	-.07	.94	-.04	-.14	.89	.02	.99
고3_학교만족	-.03	-.35	.73	-.13	-.71	.48	.63	.73
언어·사회	-.01	-.09	.93	-.07	-.36	.72	.14	.93
수학·과학	-.01	-.08	.94	-.10	-.52	.60	.28	.87
예체능	-.09	-1.03	.31	-.34	-2.33	.02	6.50	.04
학교생활	-.02	-.19	.85	-.08	-.41	.68	.20	.90
학교만족	-.17	-1.93	.05	.06	.40	.69	3.88	.14
학과만족	-.10	-1.19	.23	-.09	-.49	.62	1.66	.44
행복도	-.07	-.82	.41	-.17	-1.03	.31	1.73	.42
삶의만족	-.03	-.37	.71	-.10	-.52	.60	.41	.81

대학(n=1,641)								
변수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값	Z값	p값	값	Z값	p값	x^2	p값
고2_자아	-.06	-1.07	.29	-.20	-1.69	.09	4.00	.14
고3_자아	-.06	-.97	.33	-.20	-1.66	.10	3.69	.16
고2_학교만족	-.02	-.27	.79	-.07	-.61	.55	.44	.80
고3_학교만족	-.03	-.43	.66	-.11	-.90	.37	1.00	.61
언어·사회	-.06	-.96	.34	-.21	-1.75	.08	3.99	.14
수학·과학	-.06	-.91	.36	-.21	-1.70	.09	3.74	.15
예체능	-1.26	-3.46	.00	2.03	-4.83	.00	35.32	.00
학교생활	-.21	-.36	.72	1.08	-.76	.45	.71	.70
학교만족	-.78	-3.16	.00	1.08	.21	.84	10.04	.01
학과만족	-.71	-3.00	.00	.68	-.32	.75	9.11	.01
행복도	-.78	-1.09	.28	1.35	-.59	.55	1.54	.46
삶의만족	-.43	-.57	.57	.26	-.52	.60	.60	.74

〈표 5〉 전문대 측정변수 상관 및 공분산 행렬(n=813)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고2_자아 1	.45	.15	.11	.07	.11	.12	.11	.07	.07	.09	.25	.18
고3_자아 2	.35**	.43	.06	.08	.03	.02	.06	.08	.10	.08	.25	.21
고2_학교만족3	.28**	.17**	.33	.15	.10	.11	.12	.07	.07	.07	.11	.07
고3_학교만족4	.17**	.21**	.44**	.37	.07	.08	.10	.08	.09	.10	.18	.13
언어·사회 5	.11**	.03	.12**	.07*	2.20	1.91	1.51	.07	.06	.04	-.01	.07
수학·과학 6	.11**	.02	.12**	.08*	.81**	2.53	1.51	.13	.12	.16	.03	.09
예체능 7	.09**	.05	.13**	.10**	.59**	.55**	2.95	.05	.09	.08	.02	.07
학교생활 8	.19**	.21**	.20**	.23**	.08**	.14**	.05	.35	.29	.35	.29	.27
학교만족 9	.12**	.19**	.14**	.17**	.05	.09*	.06	.59**	.71	.50	.47	.45
학과만족 10	.16**	.14**	.13**	.18**	.03	.11**	.05	.65**	.67**	.79	.54	.44
행복도 11	.21**	.21**	.10**	.17**	-.01	.01	.01	.27**	.31**	.33**	3.25	2.24
삶의만족 12	.15**	.17**	.07**	.12**	.03	.03	.02	.25**	.30**	.27**	.68**	3.30

*p<.05, **p<.01

〈표 6〉 대학 측정변수 상관 및 공분산 행렬(n=1,641)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고2 자아 1	.44	.18	.12	.08	.10	.06	.12	.09	.10	.11	.23	.23
고3 자아 2	.42**	.43	.08	.12	.13	.09	.13	.10	.13	.15	.24	.21
고2 학교만족3	.30**	.22**	.34	.16	.05	.07	.12	.09	.10	.11	.20	.18
고3 학교만족4	.19**	.30**	.46**	.35	.08	.09	.13	.10	.10	.12	.21	.16
언어·사회 5	.10**	.14**	.06*	.09**	2.19	1.88	1.36	.11	.10	.19	.09	.09
수학·과학 6	.06*	.08**	.07**	.09**	.77**	2.73	1.28	.13	.14	.23	.12	.05
예체능 7	.11**	.11**	.12**	.13**	.53**	.45**	2.96	.15	.18	.20	.09	.01
학교생활 8	.25**	.27**	.26**	.29**	.13**	.14**	.15**	.32	.24	.29	.26	.21
학교만족 9	.18**	.25**	.22**	.21**	.08**	.10**	.13**	.52**	.67	.43	.31	.27
학과만족 10	.20**	.26**	.22**	.23**	.15**	.16**	.14**	.59**	.62**	.73	.42	.38
행복도 11	.22**	.23**	.22**	.23**	.04	.05	.03	.29**	.24**	.31**	2.48	1.85
삶의만족 12	.20**	.19**	.18**	.16**	.04	.02	.00	.22**	.19**	.26**	.70**	2.84

*p<.05, **p<.01

〈표 5〉, 〈표 6〉은 전문대와 대학 2개 집단의 상관 및 공분산 행렬이다. 두 개 집단 공통적인 결과는 고_학업성취와 대학 행복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대 집단에서는 고_학업성취가 대학 학교만족도 그리고 고_자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수 간의 상관은 구조방정식모형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이지만,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표 7〉 전문대와 대학 집단 측정변수 평균차이 검증

변수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고 자아 정체감	고2_자아	전문대 대학	813 1641	3.50 3.71	.67 .66	-7.21	.00
	고3_자아	전문대 대학	813 1641	3.59 3.72	.66 .65	-4.82	.00
고 학교 만족도	고2_학교만족	전문대 대학	813 1641	3.62 3.77	.57 .59	-6.09	.00
	고3_학교만족	전문대 대학	813 1641	3.76 3.86	.60 .59	-3.95	.00
고_학업성취	언어·사회	전문대 대학	813 1641	5.57 6.53	1.48 1.48	-15.01	.00
	수학·과학	전문대 대학	813 1641	5.28 6.29	1.59 1.65	-14.38	.00
	예체능	전문대 대학	813 1641	6.51 7.13	1.72 1.72	-8.36	.00
대_학교 만족도	학교생활	전문대 대학	813 1641	3.49 3.64	.59 .57	-6.21	.00
	학교만족	전문대 대학	813 1641	3.58 3.77	.84 .82	-5.30	.00
	학과만족	전문대 대학	813 1641	3.37 3.69	.89 .85	-8.75	.00
대_행복감	행복도	전문대 대학	813 1641	7.80 8.10	1.80 1.58	-4.14	.00
	삶의만족	전문대 대학	813 1641	7.05 7.39	1.82 1.68	-4.61	.00

<표 7>은 전문대와 대학 두 집단의 측정변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분석결과 12개 측정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대보다 대학 집단의 평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점의 자아정체감, 학교만족도 및 학업성취 그리고 대학교 재학 시점의 학교만족도와 행복감 모두 4~6년제 대학 집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설정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도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대와 대학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러나 평균차이가 인과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차이 검증은 두 집단 특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대학생의 학교만족도 및 행복감 분석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학교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정량적 적합도 평가지표인 Chi-square(χ^2)는 설정된 모형의 공분산 행렬이 모집단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집단 공분산 행렬에 들어맞는 정도($\Sigma = \Sigma(\theta)$)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이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에 있어 χ^2 값이 작고 확률 값이 유의미하게 클 때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모형 적합도는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정량적 적합도 지수인 χ^2 는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 변수 간의 구조에 정확하게 일치된다(exactly fit)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모집단 공분산 행렬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공분산 행렬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합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합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확합치(χ^2) 기준을 완화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가 근사합치도(approximative fit)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며, RMSEA가 .05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기중, 2012). 이에 본 연구모형의 RMSEA는 전문대와 대학 각각 .032와 .042로 구조방정식모형 전체 적합도는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문대와 대학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동질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집단의 인과관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집단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적합도 지수인 χ^2 는 적절하지 않으나 RMSEA는 .04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대와 대학 두 집단의 인과관계가 유사한 맥락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추정 결과이다. 따라서 전문대와 대학 집단의 데이터를 동일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두 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에는 위반추정치(heywood case)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개별 추정치를 비교하였다.

〈표 8〉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모형	$\chi^2(p)$	df	GFI	TLI	CFI	RMSEA
전체 모형(n=2,454)	200.76(.00)	44	.99	.98	.99	.038
전문대 모형(n=813)	88.00(.00)	44	.98	.98	.99	.035
대학 모형(n=1,641)	168.95(.00)	44	.98	.98	.98	.042
다집단 모형(전문대/대학)	362.15(.00)	122	.98	.98	.98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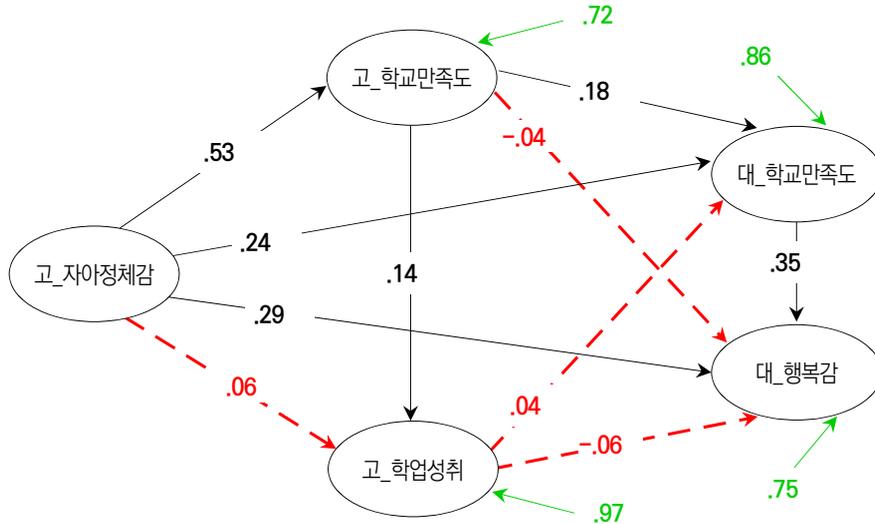
〈표 9〉는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측정모형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측정변수가 고_자아정체감, 고_학교만족도, 고_학업성취, 대_학교만족도, 대_행복감 잠재요인을 설명하는 람다(λ) 추정치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측정변수가 각각의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해석과 논의는 잠재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9〉 측정모형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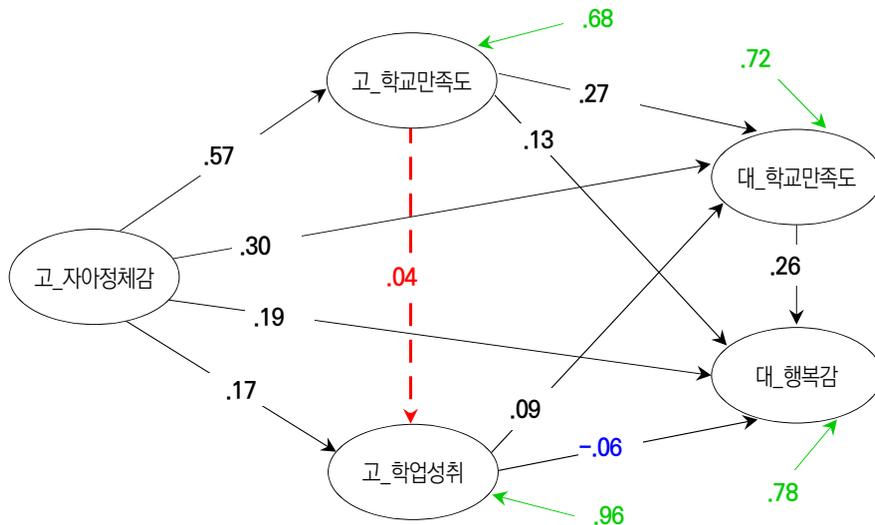
추정 경로		전문대 모형(n=813)		대학 모형(n=1,641)	
		B(SE)	β	B(SE)	β
고_자아정체감	고2_자아	1.00	.63	1.00	.61
	고3_자아	.88(.11)	.56	1.11(.08)	.69
고_학교만족도	고2_학교만족	1.00	.69	1.00	.67
	고3_학교만족	.99(.12)	.64	1.03(.07)	.69
고_학업성취	언어·사회	1.00	.92	1.00	.95
	수학·과학	1.02(.04)	.88	.96(.03)	.81
	예체능	.80(.04)	.64	.69(.03)	.56
대_학교만족도	학교생활	1.00	.76	1.00	.73
	학교만족	1.45(.07)	.78	1.45(.06)	.73
	학과만족	1.68(.08)	.85	1.71(.06)	.82
대_행복감	행복도	1.00	.90	1.00	.93
	삶의만족	.84(.07)	.76	.87(.05)	.75

주: 측정모형(전문대, 대학) 전체 λ 값은 *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

[그림 3]과 [그림 4]는 표준화추정치로 제시한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제시하였다. 〈표 10〉은 구조방정식모형 직접효과, 〈표 11〉은 구조방정식모형 간접효과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2~4년 전문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그림 4] 4~6년 대학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교 시기는 청소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반면, 전문교육이 시작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업활동에 몰입해야 전환기이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먼저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고_자아정체감 → 고_학교만족도 경로는 전문대와 대학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전문대 $\beta=.53$, $t=6.46$ / 대학 $\beta=.57$, $t=13.00$).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효능감을 측정한 문항이며, 학교만족도는 학교 전반 만족, 학교시설 만족 그리고 교사 만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즉, 고등학생의 중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이 긍정적이면 학교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

는 전문대 뿐 만 아니라 대학 진학생에게도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와 대학 두 집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_자아정체감 → 학업성취 효과는 전문대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전문대 $\beta = .06, t = .93$), 대학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전문대 $\beta = .17, t = 3.54$)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8개 교과목의 내신 성적으로 측정된 요인이다. 전문대 진학 집단은 자아정체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대학 진학 집단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대 진학 집단에서도 고_자아정체감 → 고_학교만족도 → 고_학업성취 경로 즉, 자아정체감이 학교만족도 매개한다면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 11> 참고).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대학교 시기의 학교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_자아정체감 → 대_학교만족도(전문대 $\beta = .24, t = 3.20$ / 대학 $\beta = .30, t = 6.27$) 및 고_자아정체감 → 대_행복감(전문대 $\beta = .29, t = 3.78$ / 대학 $\beta = .19, t = 4.13$) 효과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를 마무리 하는 고등학교 시기는 성인기로 이행해서 독립적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성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과 평가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시점의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은 대학과 전공을 자신의 역량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해주며 따라서 만족스런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고_학교만족도가 고_학업성취, 대_학교만족도 및 대_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또한 전문대와 대학 집단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고_학교만족도 → 대_학교만족도는 두 개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전문대 $\beta = .18, t = 2.67$ / 대학 $\beta = .27, t = 5.59$).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교만족도는 측정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전문대와 대학 두 집단 모두 고등학교 학교만족도는 대학 시기의 학교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만족도 측정 내용이 다를지라도 학교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부연하면 고등학교 시기 학교만족도가 높으면 대학시점의 학교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전문대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모두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_학교만족도 → 고_학업성취 효과(전문대 $\beta = .14, t = 2.11$ / 대학 $\beta = .04, t = .81$)는 전문대와 대학 집단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대 진학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대학 진학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 진학 고등학생들은 학교만족도가 높으면 학업성취도도 높아지는 반면, 대학 진학 고등학생들의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_학교만족도 → 대_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또한 전문대와 대학 집단에서 차이가 있다(전문대 $\beta = -.04, t = -.68$ / 대학 $\beta = .13, t = 2.85$). 그러나 그 방향은

고_학교만족도 → 고_학업성취 경로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 진학 학생 집단의 고등학교 만족도는 대학교 시기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대학 진학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 진학 집단에게 고등학교 학교만족도와 전문대학 행복감은 의미있는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 집단은 고등학교 학교만족도가 높다면 대학 재학시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 성과인 학업성취가 대학 재학시 학교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와 대학 두 집단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고_학업성취 → 대_학교만족도 효과는 전문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beta=.04, t=.94$), 대학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beta=.09, t=3.41$)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높으면 대학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대학집단과 다르게 전문대 집단은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고_학업성취 → 대_행복감은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전문대 $\beta=-.06, t=-1.48$ / 대학 $\beta=-.06, t=-2.12$). 전문대 집단은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교 재학 현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대학 집단은 고등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 재학 행복감은 낮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학 집단의 경우 우선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생활과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성적 향상을 위해 학업활동에 몰입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대학생으로 삶과 행복감은 고등학교 교육성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10〉 구조방정식모형 직접효과

경로		전문대(n=813)				대학(n=1,641)			
		B	β	SE	t	B	β	SE	t
고_자아정체감	→ 고_학교만족도	.50	.53	.08	6.46***	.22	.57	.02	13.00***
	→ 고_학업성취	.21	.06	.22	.93	.23	.17	.07	3.54***
	→ 대_학교만족도	.26	.24	.08	3.20**	.12	.30	.02	6.27***
	→ 대_행복감	1.11	.29	.29	3.78***	.28	.19	.07	4.13***
고_학교만족도	→ 고_학업성취	.48	.14	.23	2.11*	.13	.04	.16	.81
	→ 대_학교만족도	.21	.18	.08	2.67**	.28	.27	.05	5.59***
	→ 대_행복감	-.18	-.04	.27	-.68	.48	.13	.17	2.85**
고_학업성취	→ 대_학교만족도	.01	.04	.01	.94	.03	.09	.01	3.41***
	→ 대_행복감	-.07	-.06	.05	-1.48	-.06	-.06	.03	-2.12*
대_학교만족도	→ 대_행복감	1.27	.35	.16	7.78***	.93	.26	.12	7.43***

*p<.05, **p<.01, ***p<.001

〈표 11〉 구조방정식모형 간접효과

경로		전문대(n=813)				대학(n=1,641)			
		B	β	SE	t	B	β	SE	t
고_자아정체감	→ 고_학업성취	.24	.07	.12	2.06*	.03	.02	.04	.81
	→ 대_학교만족도	.11	.10	.04	2.85**	.07	.17	.01	6.08***
	→ 대_행복감	.34	.09	.15	2.27*	.27	.19	.04	6.51***
고_학교만족도	→ 대_학교만족도	.01	.01	.01	.86	.00	.00	.00	.79
	→ 대_행복감	.24	.06	.11	2.19*	.26	.07	.06	4.42***
고_학업성취	→ 대_행복감	.02	.01	.02	.93	.03	.02	.01	3.08**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대_학교만족도 → 대_행복도는 전문대와 대학 두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전문대 $\beta = .35$, $t = 7.78$ / 대학 $\beta = .26$, $t = 7.43$). 대학생활, 학교 및 전공 만족은 초기 성인기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대학 진학 집단의 고_학업성취 → 대_행복감 경로의 부적 효과가 대_학교만족도를 매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 효과($\beta = .02$, $t = 3.08$)를 나타내는 맥락은 대학생 집단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_학교만족도, 고_학업성취, 대_학교만족도, 대_행복감 방해오차(ζ)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와 대학 진학 집단의 고_학교만족도 방해오차는 각각 .72와 .68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자아정체감이 학교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전문대는 28%, 대학은 32%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자아정체감은 전문대 진학생보다 대학 진학생에게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_학업성취 방해오차는 전문대와 대학 각각 .97과 .96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즉, 고등학교 자아정체감과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적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 4%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 중요 발달과업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학교 또는 교육 특성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괴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대_학교만족도 방해오차는 전문대와 대학 진학 집단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대는 .86이며 대학은 .72로 이 결과는 고_자아정체감, 고_학교만족도 그리고 고_학업성취가 대_학교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전문대 집단은 약 14%, 대학 집단은 약 28%인 것이다.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기의 발달과업과 대학만족도 간 연계는 전문대보다 대학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_행복감의 방해오차는 전문대 .75, 대학 .78로 미미하지만 전문대 집단에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추정된 오차는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기의 발달과업과 초기 성인기 대학 및 삶의 방향이 전문대 진학 집단보다 대학 집단에서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존적 아동기와는 다르게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 즉,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 자아정체감은 성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라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자신의 미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성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기 고등학생에게 중요한 또 다른 발달과업은 학업활동이다. 특히 학업성고가 성인기 이후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학업활동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인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업활동 발달과업이 대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논리적 맥락으로는 자아정체감은 학업활동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 대학생 삶에 긍정적이고 만족스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 맥락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점에서 자아정체감은 고등학교 만족도, 대학 만족도 그리고 대학 시기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다. 이 결과는 전술한 자아정체감의 특성,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한 논리적 가정을 매우 정확하게 검증해 주고 있다. 다만 자아정체감이 고등학교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전문대 진학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문대 진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 간 인과관계 맥락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의 고등학교 학업성과는 4년제 대학 진학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아정체감 모호성이 학업성취에 반영된 것인지, 자아정체감이 형성과 학업성취 간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있는지 추후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 진학 집단이 대학 진학 집단보다 인과관계 맥락이 명확하게 보인다. 즉, 대학 진학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만족도가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만족도는 학교 전반적 특성, 시설, 교사 만족으로 측정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제고 만족도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학업활동은 대학 진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진학 집단에서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첨언하면 대학 진학 집단에게는 고등학교 만족도가 학업성취와 직접 연계되지 않으며,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결정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자아정체감 → 학업성취 효과와 학교만족도 → 학업성취 효과가 전문대와 대학 집단에서 상반되게 나타난 것을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전문대와 대학 진학은 자아정체감보다는 학업성적이 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은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더라도 삶의 만족과 행복도는 4년제 대학 학생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상관없이 어떤 유형의 대학을 다니는지에 따라 대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행복감이 달라질 가능성이 시사되는 것이다.

셋째, 고_학업성취가 대_학교만족도와 대_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대학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높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대학만족도가 높은 맥락을 나타낸다. 반면 전문대 진학 집단에서 고_학업성취와 대_학교만족도 간 인과관계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고_학업성취 → 대_행복감 경로 결과는 한국사회 대학 진학 맥락이 건강한 발달과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즉, 전문대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학업성취와 대학생들의 행복감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전술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런데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결과는 대학 진학 집단의 경우 고_학업성취 → 대_행복감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부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행복감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에 근거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합당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대학과 전공이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택되어짐으로써 대학을 다니는 초기 성인기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됨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업 성취가 한 개인의 성인기 생활을 좌우할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학업활동이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비교적 서열화되어 있고, 단지 학교 뿐 만 아니라 대학 유형 간에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2~4년제 전문대와 4~6년제 대학 간 인과관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기의 발달과업은 초기 성인기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문대 진학 집단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4~6년제 대학 진학생 보다 청소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초기 성인기 특성과 연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 생활과 매우 직접적 연계되는 맥락을 확증해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 진학했으나 현재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업활동을 마친 대상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대상의 제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동배, 권중돈(2005).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곽수란(2012).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수능성적 영향요인 분석.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pp. 129-148.
- 곽수란(2013). 수능성적과 대학 학업 및 만족도 인과관계 분석(2013).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2. 19.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곽수란(2016). 비인지적 학업성취로서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2016. 9. 23.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명수정, 강승호. (2011).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 성취 및 낙관성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24(3), 619-643.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서인석, 황홍익(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159-180.
- 송영명(2011). 특목고 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탄력성, 학업적 유능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3), 647-669.
- 이기중. (2012). 구조방정식모형-인과성·통계분석 및 추론.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 이성주, 김승희, 김해경(2016).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2호, 143-166.
- 이진석, 박정환, 문창배(2010).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12권 제1호, 189-212.
- 이현경, 김정민(2017). 청소년 자아정체감, 대학만족도 및 직장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121-143.
- 임규혁, 임웅(2020). 교육심리학. 학지사.
- 황여정, 김경근(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 연구, 제16권 제2호, 181-203.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Marcia, J. 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Wiley.
- Schiedel, D. G. & Marcia, J. E.(1985). Ego identity, intimacy, sex role orientation,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49-160.

❖ Abstract ❖

Effects of adolescent developmental tasks on college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Kwak Soo-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dolescent developmental tasks on early adulthood college satisfaction and happiness using first to third data from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2 (KEEP II). Specifically, the causality between ego-identity and academic performance(school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which are major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ce, on school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is to analyze in a time series. In particular, reflecting the aspects of differences in high school academic performance and college life depending on the type of school (2-4 year college, 4-6 year college), the school were divided and analyzed into two groups(colleges and universities).

As for the analysis metho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made in which adolescence ego-identity was an exogenous variable, and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was set as the end dependent variable. The analysis program was use LISREL.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dolescence ego-ident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igh school and college school satisfaction and college happiness. However, the effects of high school academic performance(school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on college school satisfaction and happiness show different results between the college and the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firm the importance of achieving ego-identity in adolescence, which is judged can be used as information that can help good adolescent development and transition to early adulthood.

Key words: adolescent developmental tasks, ego-identity, school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happiness